

## Art Festival 2023

CICA Museum

October 6 - 8,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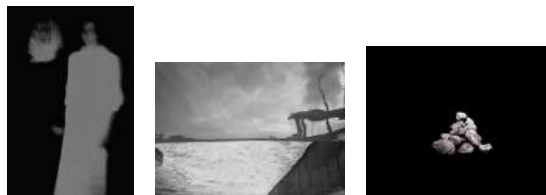
2023.10.06 - 08

**Featured Artists** 참여작가: **Odelia Atlasovitch, Cho Shin Wook (조신욱), Erica Choi (에리카최), Gwak jun yeong (곽준영), Eunbee Jo (조은비), Kang so jeong (강소정), KIM MINJU (김민주), KIM Sung Ro (김성로), Kim se yeon (이찌고세연), Kim Se-yeon (김세연), K.hana (김하나), Jin-Hee Kim (김진희), Kim Taerin (김태린), YeonSoo Kim (김연수), Odem Leibovitz, HIRAGA Mari, Kate Marley, MoGaYoung (모가영), Moon Yeeun (문예은), Hyeon O (현오), JAEHYOUN PARK (박재현), Bismark Alejandro Rex, JI HYEON SHIN (신지현), Swan Song (송수연), SOULIMMIX (Kétino Mikadze)**

The event was organized to provide the public with more opportunities to purchase artworks and crafts directly from artists and designers. The Museum charges no commission if the work is sold.

본 행사는 아티스트의 작품 및 제작품을 일반 관람객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예술 작품 구매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내 작품 및 제품은 작가에 의해 직거래되며 판매 시 미술관 측 커미션은 없습니다.

### Odelia Atlasovitch



"LOST AND FOUND (Edition 1/3)", "WATER REFLECTION (Edition of 3)" (2022), "STONES (Edition 1/5)" (2022)

**Odelia Atlasovitch** was born In Ramat Gan, Israel. Atlasovitch is an artist who primarily works with photography and film. Atlasovitch studied photography at the Antwerp Academy of Fine Art in Belgium and film directing at Fred Kelemen's laboratory. She received honors from the cinema department of the Minshar School of Arts Tel Aviv, and a BA in Liberal Arts. Atlasovitch's works deal with remembrance, subtly addressing personal politics and social issues.

In Atlasovitch images the black and white works in a way that hides the colors, transforming the image to another reality value. It opens the possibility to picture something in such a way that you can almost color it in.

Much of Atlasovitch's works is about hiding things. It is more about hiding than showing. What Atlasovitch shows, suggests things. By showing little the suggestions are increased. Atlasovitch plays a lot with this fine line. Atlasovitch's body of work is not separated into series, the body of work is one.

### Cho Shin Wook (조신욱)



새가 있는 책가도 (2021), "붉은 복주머니가 있는 책가도" (2021), "라디오가 있는 책가도" (2023)

새가 있는 책가도

책가도는 초기에는 구획된 화면에 소재들이 좌우 대칭으로 균형을 이루다가 점차 자유로운 배치 구도를 취하고 색채도 화려하게 구사되었다. 이러한 책가도의 소재를 가져다 표현하고자 한다. 난초 화분, 여행 중 잠시 들렸던 오죽헌, 책 등을 틀안에 넣어 한 공간에 놓아보니 우리 가족의 추억과 삶의 단면을 엿 볼 수 있다.

붉은 복주머니가 있는 책가도

축소된 책가도 형태로 4칸의 격자 안에 책과 원앙새, 복주머니로 구성하고 각각의 사물들을 선명한 색상으로 섬세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울산바윗길

바위로 이루어진 산을 오르다보면 바위 틈새를 비집고 나와 보란듯이 살아가는 소나무를 보게 된다. 유독히 그런 소나무들은 집 마당에 옮겨다 놓고 싶을 정도로 멋드러진 모습을 하고 있다. 설악산 울산바위 오르는 길에는 바위와 한 몸이 된 소나무들이 힘든 오름 길을 잇게 한다. 잠시 맘을 식힐 겸 돌아보면 구름 낀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도 비할 바 없는 작품이 된다.

조신욱은 1993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백석예술대학교 회화과와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회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CICA 미술관 전시, 2021년 MANIF (예술의 전당) 전시를 포함하여 6회의 개인전과 4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창조미술대전 우수상, 대한민국문화예술대전 은상, 유니온아트페어, 브리즈아트페어 등의 공모전에 선정되었다.

우리 주변의 친근한 사물 및 풍경들이 작가의 타고난 밝은 색채감으로 해석되면 긍정을 지향하는 따뜻한 결과물로 다가오며, 다양하고 소소한 일상을 채워가는 작업에서 친근하고 다정한 교감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작가의 의도를 볼 수 있다. 내부의 순수한 표현 욕구를 자연스럽게 외면화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그림 그리는 것이 즐거운 조신욱에게 주변의 모든 이미지들은 내적 감수성과 그것을 드러내는 조형적 내재율을 완성시켜주는 원천이다.

### Erica Choi (에리카최)



"Love Tigers #1" (2023), "Love Tigers #2" (2023), "Love Tigers #3" (2023)

영원히 지속되는 순간은 없다. 아무리 소중한 행복했던 시간이라도 지나가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바라보는 하늘 풍경, 그와 함께 발 담갔던 바다의 살랑이는 파도, 꽃들이 활짝 핀 마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저녁 시간. 특히 이렇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들은 유난히 빠르게 지나가고 그만큼 소중하게 느껴진다. 나는 그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이 아쉽고 안타까워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남긴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오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감동의 순간들을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 사진들을 다시 꺼내어 보았을 때, 필연적인 망각을 마주하게 된다. 왜곡되고 분절된 기억들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아쉽고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 잊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들이 영원히 간직되기를 기도하며 캔버스에 하나하나 그려나간다. 나의 작업은 망각과 왜곡에 의해 수많은 파편으로 변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나가며 그 파편에 숨어있는 시간을 찾아나가는 여행이다.

그림의 재료는 직접 찍어온 사진들이다. 사진 앨범을 뒤적이며 나에게 스며들어있는 기억을 꺼내어 본다.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겹쳐 그리며 시간의 퇴적을 이야기한다. 필름 카메라로 다중노출 기법을 사용해 사진을 찍으며 여러 번 이미지를 겹치는 방법을 떠올렸다. 다중 노출을 찍기 위해서는 하나의 필름 위에 여러 번의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노출 조절에 실패해 찍어두었던 장면들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빛이 너무 많이 필름에 쏘이는 바람에 필름이 하얗게 타버린 것이다. 어떤 순간들이 들어있을지 모를 하얀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은 꼭 차있는 것일까 비어있는 것일까에 대해 고민했고 나는 내가 겪은 이 과정이 기억과 망각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사진을 겹치고 조각내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잊혀진 기억들을 그려낸다.

그 망각의 과정을 거친 기억들 위로는 형태가 떠오르는데 그 형태들은 영원히 기억되는 감정을 상징한다. 따뜻하고 행복했던 감정들, 사랑받고 사랑했던 마음들이 선물상자, 토끼,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사건의 흐름이나, 자세한 상황들은 망각될지라도 그 순간의 감정은 마음속 깊이 남아있음을 말하고 싶다.

There are no moments that last forever. No matter how precious and happy a time was, it's bound to pass. Looking at the sky with loved ones, the gentle swaying of waves as you walked by the sea together, moments spent with family in a blooming garden during evenings – especially these moments with the people I cherish and love seem to fly by quickly and feel all the more precious. I capture each passing moment, filled with regrets and longing, by taking photos, hoping that this might help me remember them a bit longer. It's about storing these moments of awe in my heart. But when I look back at those pictures after time has passed, I inevitably face the reality of forgetting. Looking at distorted and fragmented memories, I feel a strong sense of regret and sadness. Praying that the times I don't want to forget will be forever cherished, I paint them on the canvas, one by one. My work is a journey to piece together the fragments of time that have been transformed by forgetting and distortion.

The materials for my paintings are the photos I took myself. I rummage through photo albums to bring out memories that have seeped into me. I layer those photos one by one, telling the story of the sedimentation of time. Using multiple exposure techniques with a film camera, I thought of overlapping images multiple times. To capture multiple exposures, you need to take several photos on a single film. Not knowing this, I failed at exposure control, causing all the scenes I had captured to disappear. The film got overexposed, turning everything white. Looking at these white photos with uncertain moments, I pondered whether they were full or empty, similar to the process of memory and forgetting. So, I overlap and piece together the photos to depict forgotten memories that exist yet don't exist.

Above these memories that have gone through the process of forgetting, shapes emerge. These shapes symbolize emotions that are eternally remembered. Warm and happy feelings, hearts that were loved and loved in return, appear in various forms like gift boxes, rabbits, ice cream, and more. Even though the flow of events or detailed situations might be forgotten, I want to convey that the emotions of those moments remain deeply in the heart.

Erica Choi 작가는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캔버스 위에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망각의 과정은 제가 기억에 집착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시간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쳐가는 순간들이 아쉽고 안타까워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고 분절된 시간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잊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들이 영원히 간직되기를 기도하며 캔버스에 하나하나 그려나갑니다. 저의

작업은 망각과 왜곡에 의해 수많은 파편으로 변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나가며 그 파편에 숨어있는 시간을 찾아나가는 여행입니다.

2018년 학부 졸업 이후 갤러리 그리다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로 꾸준히 작가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잠시 이주하여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새로운 색감과 이미지를 사용해 작업했습니다. 2022년 한국으로 귀국하여 여러 아트페어와 전시들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I work to create new images from scattered fragments of memories, like pieces of shattering glass, on the canvas. The process of forgetting things we can't avoid makes me want to hold on to memories, so I use photography to capture moments in time. I take pictures of fleeting moments that I wish wouldn't slip away. However, despite my efforts, distorted and fragmented time still emerges. I pray for the moments that are too precious to be forgotten to be eternally preserved, as I meticulously paint them on the canvas one by one. My work is a journey to piece together the fragments of time that have been transformed by forgetting and distortion, seeking the hidden moments within those fragments.

Since my undergraduate graduation in 2018 and my first solo exhibition at Gallery Grida in Seoul, I have consistently pursued my career as an artist. In 2019, I temporarily relocated to Kuala Lumpur, Malaysia, immersing myself in exotic landscapes and using new colors and images in my work. Returning to Korea in 2022, I have actively continued my artistic endeavors by participating in various art fairs and exhibitions.

### Gwak jun yeong (곽준영)



"시들지 않는 꽃 여섯송이" (2023), "시들지 않는 꽃 일곱송이" (2023), "시들지 않는 꽃 여덟송이" (2023)

곽준영: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본인 스스로만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타인의 감정을 공유받고 이야기하며 내 자신에게 스며들어 나타나는 감정들이 본인 감정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연들은 나에게 어떤 시간이였고, 어떤 형태의 감정들로 나에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항상 그려지고 만들어졌다. 그 인연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남겨져 있거나 사라졌다. 그 인연은 나에게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는 인연들로 나에게 맞지 않았던 형태를 가진, 나에게 딱 맞는 형태를 가진 그런 모습들로 혼자만에 판단으로 그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모습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색깔이 보이는가 독이 되었던 인연은 나에게 맞지 않았던 형태와 색이었을 뿐 분명 어딘가에는 나에게 독이 되었던 인연이 다른 이에게는 득이 될 수 있는 인연이며, 나에게 득이 되는 인연은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인연 그렇기에 사람이 살아가며 생겨나는 인연이라는 형태는 소중한 기억들로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모든 인연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그 환경속에 스며들길 바라며, 그 환경속에서 자신의 형태와 색을 잃지 않길 바란다. 한 번씩은 그런 소중한 인연들에 대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 인연을 생각하며 기억할 수 있는 꽃을 그린다. 꽃의 형태는 서양 협죽도로 독초이며 약초인 식물이다. 느끼는 감정들로 하나의 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며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는 꽃이다. 다양한 모습의 꽃을 만들기 위함과 자유로움을 상징하기 위해 드리핑 기법을 사용하며, 소스통을 통해 꽃에 대한 입체감을 올리고 있다. 생각과 고민들은 스스로가 어두운 동굴속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이러한 감정들은 배가 된다.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않는 곳에서 꽃들이 보이고 그 꽃들은 여러 색들로 물들어진다. 그 색은 타인에 감정 색과 나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며 그 색은 꽃을 물들게 한다. 드리핑 기법 안에서는 한 번에 붓질로 작품에 의도성을 만들어낼수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나에게 있는 인연 또한 같다 나의 한마디,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인연은 변화한다.

### Eunbee Jo (조은비)



"유영하는 일용할 양식"(2023) "Pink Landscape"(2023), "저마다의 세계" (2023)

서울은 이상한 도시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각자의 모습들을 내비치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색상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회색의 건물들이 즐비하고 그곳에 안식처는 없었다. 서울에 사는 약 10년의 기간 동안,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다 하늘을 바라보았고, 여기에 색을 입힌다면, 그리고 보이는 것 대신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을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한강을 끼고 있는 풍경은 넓은 하늘을 뷰파인더에 담기에 좋은 장소였다. 이렇게 담은 사진들에 그날의 사건이나 감정을 담아 조작된 풍경을 만들었다.

이전 작업에선 풍경의 빛에 집중하여 가능한 사실과 가깝게 표현하려 노력했다면, 이번 작업에선 실제 풍경의 바탕을 조작하여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인지를 반영했다. 색깔 있는 서울을 보고 싶은 나의 바람을 담았다.

조은비 작가는 그림을 그릴 수 밖에 없어 그림을 그립니다. 살기 위해 시작했던 그림이,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저를 표현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편안한 방식입니다.

I paint, because it is the only way I can say something to others sincerely. I started painting for being alive, however, it is part of my life now.

### Kang so jeong (강소정)



“사막에 핀 꽃” (2023), “사막에 핀 꽃 II” (2017), “소금 사막” (2023)

#### 1-2) 사막에 핀 꽃, 사막에 핀 꽃 II

NEVERLAND의 초록과 보라빛이 가득한 숲을 빠져나오면 사막이 펼쳐진다. 건조한 사막에는 가시 없는 선인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는 운이 좋게 사막에 수만 송이의 꽃을 볼 수 있다. 7년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내려 건조한 사막에 연분홍색 꽃들을 피워냈다. 숲과 사막의 경계에 드문드문 보였던 연분홍색 꽃들이 사막을 거닐수록 점점 더 뽀뽀하게 들어차 짙은 분홍빛의 사막을 이루고 있었다.

#### 3) 소금 사막

분홍 빛의 사막 너머에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는 소금사막을 볼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고 불리는 이곳. 하늘에 떠오른 구름은 바닥에도 떠있다. 바닥에 떠 있는 구름을 밟으며 나는 오로지 투명한 나로 존재할 수 있었다.

강소정 작가는 세종대학교 한국화전공에 입학해 2019년에 졸업하였다. 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변화, 계절을 소재로 작업하고 있다. 최근엔 NEVERLAND를 소재로 작업중이다. <양주장옥진시립미술관 '제4회뉴드로잉프로젝트 2019>, <엘사의 정원 2인전 2019>, <연우재 '나너세계' 2019>등 그룹전에 참여했다.

### KIM MINJU (김민주)



"EP. 15-1 놀기" (2023), "EP. 15-2 놀기" (2023), "EP. 15-3 놀기" (2023)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다른 누구는 글로, 행동으로 그리고 물감으로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야기는 모두에게 존재하는데,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만의 이야기가 없다고 좌절하곤 합니다. 확신이 없는 이야기들은 안타깝게도 점차 불투명해지며 곧 잊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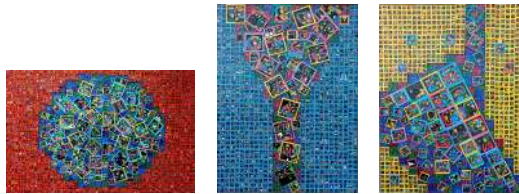
작품 속 방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공간 속에서 확보한 작은 공간입니다.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남들은 손댈 수 없는 이곳에서 우리는 먹고, 자고, 생각합니다. 방은 물리적인 집을 넘어 심리적인 집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라질 이야기들을 붙잡을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 작은 공간은 이야기를 담아내기에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이야기는 그곳에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작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야기들을 응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물감은 납작한 캔버스를 벗어나 몸을 부풀리고 정해진 공간을 벗어나는 행위를 통해 더욱 자신감을 연습합니다.

이 물감은 마치 우리와 같아서 자신만의 평범한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표출하고자 합니다.

물감이 납작한 캔버스를 벗어나 몸을 부풀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작가 김민주입니다. 조각을 전공하였으며 현재는 캔버스 위에 고무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읽기와 보기를 즐겨 사용하며 이번엔 보기를 공유했습니다.

**KIM Sung Ro (김성로)**



**"Living and Loving" (2023), "Living and Loving" (2023), "Living and Loving" (2023)**

나의 작업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수많은 그림 조각들이 모자이크 형식으로 맞추어져 있다. 그 이유는 단지 보여지는 형상뿐 아니라 여러가지 느낌과 사유, 꿈이나 추억, 감정들을 작품에 모두 담고 싶기 때문이다. 작업의 주제는 ‘살며 사랑하며’의 연작이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각과 감정들을 작은 조각에 그린 후 합하면 하나의 삶이 되고 한 작품으로서의 생명이 탄생된다. 세상은 작은 부분들이 서로 연결된 하나이다. 하나의 나무, 하나의 인간, 하나의 꽃, 하나의 세상.....

그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진 세상은 내부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집합체다. 따라서 나의 그림도 작은 세포들처럼 작은 형상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천대만상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아름답게도 보이고 괴롭고 고통스럽게도 보여진다. 나의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들이 주어진 삶과 환경들을 사랑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게도 애정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My work consists of a lot of paintings that contain various fragments of stories listed in mosaics. My work has feelings, thoughts, dreams, memories, and emotions; it takes on many appearances, and that's all. I want to express.

My working process is first to establish a topic, then to organize the thoughts and feelings which come to mind relating to that topic with the help of mind mapping, and finally to paint each small segment containing the results of my brainstorming that, when finished, combines all the pieces together to form a single work. In this process, the small parts might not be considered harmonious with the whole painting when considered individually, but the right amount of diversity gives the whole painting a sense of united harmonization that would not be present otherwise. Small parts of the world are connected to each other. One tree, one human, one flower, and even a single blade of grass, although different, all consist of the world.....

Each small part of the world gathers together to make one collection of everything connected internally. So my paintings show a collection where individual shapes come together like small cells to visually represent one topic.

김성로 작가는 국내외에서 24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Kim se yeon (이찌고세연)**



**"Dopamine Activity" (2023), "Romantic dopamine" (2023), "dopamine fantasy" (2023)**

2023년 신작은 대부분 도파민이 몸에서 발생할때의 감정을 표현한 판타지스러운 작품을 구현했다. 도파민은 행복호르몬이라고도 한다. 도파민은 신경조절물질이다. 쾌락 쾌감을 넘어서 고조된 감정과 함께 흥분을 동반한 호르몬이다. 세로토닌과 다르게 자기억제회로가 없다. 즉 취할수록 더 더 욕구가 생긴다. 사람의 욕심이 끝없는것도 도파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욕심 욕망을 채우고 이루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더 큰욕심이 생긴다. 그리고 습관처럼 되어 중독(부족현상)이 된다고 한다. 도파민의 목적을 이루기위해 그 과정에서도 즉 노력이라는 걸 하면서 동기부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트레이닝이 되기도한다. 스스로가 노력을 좋아하도록 세팅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도 한다. 누구나에게 분비되는 도파민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을 지배 받거나 또는 지배할수있다고 작가는 생각한다.

잘 꿈꾸는 몽상가는 너무 날카로운 윤곽선, 장식적인 형태들, 다채롭기만 한 색채들만을 갖고서는 행복한 여행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따금 삶은 툭툭 튀는 명랑함과 어떤 도파민적인 희열을 우리 자신의 날숨의 표현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호르몬이기도 한 도파민 쾌락과 지고한 결과적 아름다움을 지닌 사랑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고독한 계절을 통과해야만 한다. 잘 가꾼 정원이 얼마나 달콤한 역동성으로 호흡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은 그로부터 덧없이 소멸하지 않는 그런 행복을 배운다.

작가는 작품 속 귀여운 네모씨(캐릭터이름)는 도파민의 호르몬 화학식의 모형처럼 도파민을 표현했으며 툭툭 튀며 행복이-고조된 감정을 표현했다. 지금 작가는 자신만의 유토피아 속을 여행중이며 아직 중독되지않은 듯 계속 여행중이다.

Most of the new works in 2023 embody fantasy works that express the emotions when dopamine is generated in the body. Dopamine is also known as the happiness hormone Dopamine is a neuromodulator. Pleasure is a hormone that goes beyond pleasure and is accompanied by excitement along with heightened emotions, and unlike serotonin, it does not have a self-inhibitory circuit, that is, the more you get drunk, the more you want it.

A good dreamer knows that he cannot sustain a happy journey with only sharp outlines, decorative forms, and colorful colors. Sometimes, life demands a burst of cheerfulness and a certain dopaminergic euphoria as an expression of our own exhalation.

Dopamine pleasure, which is also a hormone called the happiness hormone, and love, which has the supreme consequential beauty, must pass through that season of solitude in order to be reborn. You'll be able to feel how a well-tended garden breathes with a sweet dynamism. From him the soul learns such a happiness that is fleeting and does not perish. The artist expressed dopamine like a model of the hormonal formula of dopamine in the cute square (character name) in the work, and expressed the emotion of rising happiness. Now, the artist is traveling in his own utopia and continues to travel as if he is not yet addicted. It can be said that the reason why people's greed is endless is because of dopamine. Greed: If you satisfy your desires and achieve them, you will feel good, but this is not the end, greater greed. It is said that it becomes like a habit and becomes an addiction (lack phenomenon).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dopamine, it is also a training to create motivation by doing something called effort. You'll also learn to set yourself up to love the effort. The artist thinks that dopamine, which is released in everyone, can dominate or dominate themselves in some way.

이찌고세연: 가스통 바슐라르는 몽상이 밤의 꿈을 꾸는 주체가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린 어둠일 때와는 달리, 몽상을 꾸는 주체인 몽상가는 자신의 자아의 중심에 있고 생각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몽상을 의식의 빛이 존재하는 정신 활동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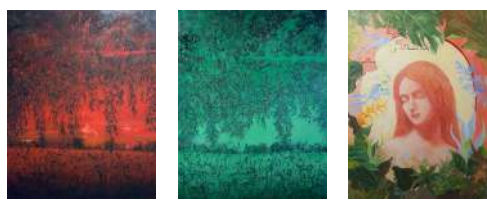
작가는 일상 모든 순간에서 의식의 빛이 존재하는 순간을 담은 몽상의 흔적들을 직관적인 표현이 아닌 몽상의 시공간의 겹겹의 레이어의 은은함을 통해 모호하고 고독한 몽상의 감정의 표현을 구현했다. 작가의 작품세계 속 사랑 받는 식물들은 얼음처럼 청량하고 밤의 피안처럼 아득한 빛의 호르몬을 기저에서 빨아들이므로써 가장 놀라운 생장을 하고 있다. 작가가 부여한 빛을 머금고 마음껏 자라나는 생장이란 곧 몽상 안에서 이룩한 각별한 행복이다.

행복은 쾌락과 욕망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알 수 없는 모호한 형체 생명체이거나 아닌 존재로 작가는 몽상 속 감정을 잡히지 않는 물질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색을 넣고 질감을 부여하여 구현해본다.

Gaston Bashullar argues that, unlike when the subject of the night's dream is the darkness in which the dreamer has lost his or her self, the dreamer, the dreamer, is at the center of his ego and is able to maintain himself as a thinking subject. And he sees daydreaming as a mental activity in which the light of consciousness exists.

The artist embodied the expression of vague and lonely emotions of a dream, not through an intuitive expression of the traces of a dream, which contains the moment when the light of consciousness exists in every moment of daily life, but through the subtlety of the layered layers of the space-time of the dream. The artist's worksThe plants that continue to be loved grow the most amazing by sucking in the hormones of light from their bases, which are as fresh as ice and as distant as the blood of the night. The growth that grows freely with the light given by the artist is the extraordinary happiness achieved in a dream. Happiness is an unknown and vague form of life in various forms of pleasure and desire, or it is not, and the artist tries to embody a substance that does not hold the dreamy emotions by adding color and giving it texture as if it existed.

**Kim Se-yeon (김세연)**



"오후의 불가사의 1" (2021), "오후의 불가사의III" (2023), "멈춰있는 시선II" (2023)

김세연 작가의 작업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발현되는 감정을 은유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인간의 욕망은 다양하고 단편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가 난무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조화에 대해 다룬다. 공존하지 못할 것 같지만 결국은 새로운 방식이 모색되어 조화를 이루고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주관적 불안정을 다독이는 작업과정이다. 부조화는 불안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이미지의 왜곡과 상상을 통해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부조화와 불안은 허구화 되어 버리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희망을 담는다. 모든 것을 편안하게 품어내기 어려운 한계에 이해와 포용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아 작업한다. 누구나 불완전한 내면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세계만은 편안하고 완전하기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림이다.

**K.hana (김하나)**



"조훈서"(2023) "Bengt Westerlund"(2023) "문은교"(2023)

나는 일종의 장의사다. 나는 내가 애정하는 이들을 위해 고른 네블라에 블랙홀이라는 안식처를 그려넣는 행위를 통해 대상의 안녕을 기원한다. 관측 불가능한 우주 저 너머의 광자나 발견하지 못한 존재인 업다운 쿼크처럼, 우리의 영혼이 아직 관측되지 않은 불확실한 에너지이기에 우리는 이를 통한 삶의 지속을 두려워한다. 나는 불확실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영혼이라는 존재를 위해, 불완전한 과학 이론 및 관측을 예술과 접목시켜 블랙홀을 자기 위안적 공간으로 변형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에 겪는 그 모든 불안을 무(無)의 상태로 인도하고자 한다. 블랙홀은 시공간이 왜곡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과 다르면서 도 아직 미지로 남은 공간이다. 여기에 나는 나의 소중한 이들의 이름을 적어 기도를 올리고 어 떠한 지도를 만들었다. 그 곳에서 우리는 고통 없이 잠든 것처럼 고정되어 우주가 완전히 소멸하는 날을 맞이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헤매지 않고, 언젠가 완전한 무가 될 것이다.

I'm a kind of undertaker. I wish for the well-being and goodbye of the object through the act of drawing a black hole, a sanctuary, on the Nebula I have chosen for the people I love. Like photons beyond the unobservable universe or up-down quarks, which are undiscovered beings, our souls are uncertain energy that has not yet been observed, so we fear the continuation of life through them. For the existence of a soul that leads an uncertain life, I have transformed the black hole into a self-comforting space by combining imperfect scientific theories and observations with art. I want to lead all the anxiety we experience because we are not perfect to a state of nothingness. Because the black hole is the space in that time is distorted or does not exist, It's different from the place we live in and still remains unknown. Here, I wrote down the names of my precious people, prayed and made a map for them. There, we are fixed as if we were asleep without pain, and we will greet the day when the universe completely disappears. So, we don't get lost, and one day we will be completely nothing.

김하나 작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재학 중이다. 불완전한 과학의 틈새를 통해 자기위안적 공간을 만들고 이를 시각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Currently studying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I am working on creating a self-comforting space through the gaps of incomplete science and making it visual.

**Jin-Hee Kim (김진희)**



**"PuzzleDino -1" (2023), "PuzzleDino -2" (2023), "PuzzleDino -Digital" (2023)**

내 예술적 세계관에서 "랜덤 미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의도한 것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고 믿으며, 창작 과정에서 확률론적 접근은 우리의 관습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는 작품의 기반을 제공한다. 컴퓨터 언어 프로세스는 규칙에 기반하여 모양과 패턴을 형성할 수 있으며 특정 작업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다. 그리고 확률적 접근법은 규칙에 따라 창의적 결과와 자아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물은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져 관람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컴퓨터 프로세스에서 랜덤과 반복 기능을 결합하면 형태와 패턴에 무한한 변형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다수의 결과물들 중에서 성공적인 일부분들을 발체하고 결합하면 창작물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중점을 둔 작품들이 CICA 박물관이 개최한 "Art Teleported 2023"의 솔로 전시인 "Random Forest" 에서 전시되었다. 전시된 작품들은 시뮬레이션으로 개념화되어 캔버스 프린트, 머그, 퀼트, 조각 및 3D 퍼즐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로 구현될 가능성을 제안한다. 이번 전시작 PuzzleDino는 "Random Forest" 전시작품 이었던 Dino의 일부분을 발체하여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되고 퍼즐로 제작된 작품이다. 나무 퍼즐 조각들로 제작되어 원본 이미지의 색상으로 아크릴 페인트 되어 하나로 조립되었다.

In my artistic worldview, "random aesthetics" holds a significant place. I believe that something created by chance can be more beautiful than something intended, and in the creative process, a probabilistic approach provides the foundation for works that surpass the limits of our conventional thinking. Computer language processes can form shapes and patterns based on rules and can endlessly repeat specific tasks. This probabilistic approach allows for creative outcomes and self-expression based on its rules, making it difficult to predict the final result, which can be appealing to viewers. By combining random and repetitive functions in computer processes, it's possible to generate infinite variations in shapes and patterns. Selecting and combining successful portions from among these numerous results can enhance the quality of the artwork. Artworks that focused on this process were exhibited at the solo exhibition "Random Forest" held by CICA Museum as part of "Art Teleported 2023." These exhibited works are conceptualized as simulations,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media, such as canvas prints, mugs, quilts, sculptures, and 3D puzzles. The featured exhibition piece, PuzzleDino, is a three-dimensional simulation and puzzle creation extracted from a portion of the original artwork, Dino, which was part of the "Random Forest" exhibition. It was made by assembling wooden puzzle pieces, painted with acrylic paint to match the colors of the original image.

김진희 교수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컴퓨터 예술가이다. 백제예술대학교에서 컴퓨터 아트와 미술사를 가르치고 있다. Professor Kim is a computer-mediated artist acting out in South Korea. She is teaching Computer Art and Art History at Paekche Institute of the Arts in South Korea.

**Kim Taerin (김태린)**



**"My Dear-12" (2022), "My Dear-13" (2022)**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 안에 잠재 되어있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 입니다. 작품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인정받는 것과는 별개로, 예술은 평범한 삶 그 자체로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들과 생활 속 일상 또는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표현 하는 것이 내재된 예술의 발현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발전시켜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예술가이고, 나아가 개인적인 표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작품의 꽃은 나의 감정들 혹은 '나' 자체를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 쓰임과 가치가 변하는 것처럼 꽃으로 피어난 감정을 담은 순간 내 마음은 화병이 됩니다.

무얼 피워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느끼는대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내가 색색이 피어납니다. 어떤 순간의 '나'는 노란 카탈리나 장미거나, 물기 가득 머금은 붓꽃이거나, 바람 불면 흩날려버릴 이름 없는 들꽃들 입니다. 때로는 각각의 꽃들이 섞여들어 하나의 커다란 다발이 되기도 합니다.

꽃들은 제각각 각자의 색에 맞게 만개 했다가 각자의 시간이 되면 지고, 때를 기다리면 다시 피어납니다. 저는 이런 꽃들의 시간이 계속 순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잊고 또 이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순환이 연속이듯 '나'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감정들이 뒤섞여 한 사람의 '나'를 만들어내고, 선명하게 빛나던 현재는 바싹 마른 꽃처럼 생기를 잃고 지나간 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삶은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나 역시 삶을 사는 동안 계속 변화 하겠죠.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머무르고 싶던 과거의 순간, 기억하고 싶은 현재의 감정, 앞으로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함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저의 예전 작품들이나 현재의 작품 모두를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 자신은 가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입니다. 작업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지난 시간을 되새김 하며 아쉬워하기 보단, 경험을 통해 삶을 새로이 해석하고 다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들이 나를 만들었으며, 지금의 나로 인해 새로운 꽃이 피어난다는 것. 우리의 삶은 연속적이라는 것을 작품에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꼭 꽃을 피워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되면 피고 지는 꽃처럼 이내 자신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YeonSoo Kim (김연수)**



**“entangled #23-1” (2023), “entangled #23-2” (2023), “entangled #23-3” (2023)**

오래 전 낯선 나라, 낯선 문화의 일상에서 만난 거대거미, 타란툴라는 제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신비와 경이감을 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가감정은 제게 강력한 모티브가 되었고 거미와 거미줄을 통해 현대인의 자화상을 연구하며 작업과 연결 짓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Entangled'는 사물이나 사람 간 물리적으로 서로 얽힌다는 뜻입니다. 작품은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을 세상과 만나는 역동적 공간으로 표현 하고 있습니다..

While I was adapting in a unfamiliar cultural surrounding, I encountered the tarantula, a creature of fear and terror as well as mystery and wonder. This ambivalent feeling became a strong motive for my work where I continued researching and working on connecting the modern life with spider and its web.

The title “entangled” refers to a person or two objects that are physically connected to each other.. The work represents the spiderweb as a dynamic space where the world meets.

김연수 작가는 201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졸업 후 줄곧 거미를 테마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거미를 통해 현대인의 불안과 공포 그러면서도 공존해야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수의 개인전과 한국교원대 박물관 설치작업 및 '2019 뉴욕 아고라 갤러리'의 대표작가로 활동하며 경계없는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Kim Yeon-soo has been working on the theme of spiders since graduating from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in 2017. Through spiders, she depicts the story of the anxiety and fear of modern people, but also reminding the fact that life must coexist. She continues to work without boundaries, through numerous solo exhibitions, installation work at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useum, and as the representative artist of the 2019 Agora Gallery in N.Y..

**Odem Leibovitz**



**"MELODY BEFORE THE STORM (Edition of 5)" (2022), "THE PINK FLOWER (Edition of 3)" (2020), "UNTITLED (Edition 1/3)" (2023)**



**Odem Leibovitz** was born in Tel Aviv, Israel. Leibovitz is an artist practicing the medium of photography. Leibovitz studied photography at the Antwerp Academy of Fine Art in Belgium and film directing at Fred Kelemen's laboratory, and painting at Washington Studio School. Leibovitz's works deal with space and light, she uses both as tools to create a poetic monument of political and personal quest.

Practicing the medium of photography, Leibovitz's works come to life in the darkroom, starting with a single negative which she manipulates in various ways to create different positives, working with the endless possibilities to create an image. Leibovitz works like a painter with her prints and uses photo chemicals and light like paint.

Leibovitz's work does not yet exist when it is recorded on camera. Many photographers "date" works based on when they photograph it, Leibovitz does not. Her works are dated when the print is made.

### HIRAGA Mari



#### "MEMORY" (2023)

Memories are Ties.

Assuming that memory is a collective entity composed of multiple intertwined fragments, the nerve cells that govern memory themselves bear a striking resemblance to its structure and exhibit a correlation.

These can be likened to wrinkles etched with the passage of time, as well as crossroads in one's life.

Along with the concept that life also circulates in the flow of memories and people, Hiraga projects the blossoms of memory, vast and boundless as the universe, into her artworks.

**Mari Hiraga** places importance on expressing the human world through anthropomorphism, sublimating her thoughts into organic expression with an underlying sense of narrative.

### Kate Marley



#### "coffee milk coffee shop" (2021), "쌈" (2022), "부대찌개" (2022)

Many works in this collection are focused on the artist's connection with and relation to her Korean heritage, one she had not embraced until recent years. This connection includes the dark thoughts, the excitement, the fear, and the celebration of being Korean by blood but feeling like an outcast in both birth country and current country.

Several works focus on food and food-related themes, including grocery items and well-known recipes. Others focus on buildings and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 specific type of beauty that the artist loves to try to capture, even though very little of her skills can do the grandeur justice. Lastly, there are pieces that focus on people, typically on the darker, anxious, or depressing side, something the artist typically enjoys expressing and evoking, and also understands well.

At its core, all of these works encapsulate artist's expression of what she feels as a Korean, an American, and a general human being trying to make her way through life.

**Kate Marley** is a multi-hyphenate actor, creator, and artistic professional based in Los Angeles, and 정미술 (jungmisul)--a portmanteau of her Korean birth name, 정미 (jung mi), and 미술 (misul), the word for "fine art"--was born out of a desire for both artistic freedom and self-love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pandemic. A Korean-American adoptee, all of Kate's art generally focuses on her passion & interest for Korean art/culture/media, as well as living through both the joy and the pain of her own rediscovery of and pride in her heritage.

## MoGaYoung (모가영)



"익명범시리즈\_고슴도치" (2022), "익명범시리즈\_악어" (2022), "익명범시리즈\_욕조" (2022)

인간은 타인의 행동은 행동 그대로 판단하지만 자신의 행동은 내면을 통해 판단한다. 자아는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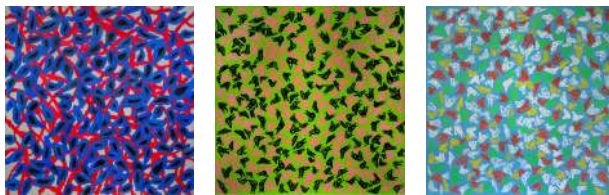
잘 된 건 내 덕이고 안된 건 남 탓이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인간은 남에게 불필요한 시선을 보낸다. 가까운 지인의 가정사부터 연예인 걱정까지, 시답잖은 일에도 모두 판사가 된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들의 시선은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간섭일 뿐이다.

<익명범시리즈>에서 '익명범'이란, '익명'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뜻하는 '-범'을 조합하여 탄생시킨 새로운 단어이다. SNS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금,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세상에서 사람들은 보다 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다. 익명성을 방패 삼아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을 '익명범'이라 명명하고, 그들의 불필요한 시선에 집중한다.

<익명범시리즈>의 모든 작품에서는 눈을 찾아볼 수 없다. 눈을 모조리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익명범'들이 보내는 불쾌한 시선이 느껴진다. 그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을지 모른다.

모가영 작가는 회화뿐만 아니라 영상, 조형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간의 어두운 내면이나 불필요한 시선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두컴컴하고 극단적인 작품들 속에는 작가의 미의식이 담겨있기도 하지만, 관객의 주목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시선을 끌고 재밌게 해석할 수 있도록 표현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다.

## Moon Yeeun (문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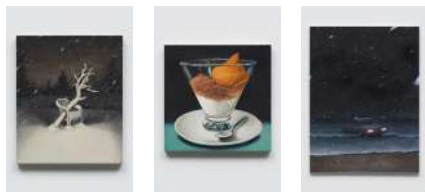


"Leech" (2023), "Snail" (2023), "Snail" (2023)

인간이라는 존재를 탈락시키고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햇빛이 내려가고 불을 끄면 어둠이 찾아오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오직 내 기분이 편안한 것과 따뜻해지는 것이다. 나는 죽음에 대하여 모르고 죽음에 대한 내 생각은 틀림없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그러기에 살고 싶은 것은 건강하고 싶은 것은 아름답고 싶은 것은 행복을 느끼고 싶은 것은 내가 끝나는 순간까지 가지고 싶을 희망이다. 내 삶에 대하여 또는 내 기분이나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 그로 인하여 내가 떠올리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것이 주로 꽃, 거머리, 줄기 그리고 달팽이 같은 모양들로 자주 표현된다. 내 그림들 속에 대한 내 마음과 감정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아름다움들, 검은 파도와 피로 물들어지는 구름들, 깊은 예술과 또 그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마음들 사람들과 공감 수 있는 아름다움을 끝없이 창조해 나가는 그런 세계가 올 수 있도록 나는 진정으로 바란다.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일그러지고 죽어있다는 생각에 가득 차있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눈을 감았을 때, 달팽이들이 가득한 세상이 나를 위로했다. 종이 위에 달팽이를 그리다 보면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다. 이렇게 나의 달팽이는 나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나의 길 그리고 세상인 것이다. 아름다운 빛 속에 누워, 다시 깨어나는 일 없이 살아가고 싶었다. 누구의 삶도 아니고, 누구의 감정도 아닌, 마치 하늘이거나 구름처럼 자유롭게. 그러나 나는 얼어 있었다가 다시 깨져버리는 유리 조각과 같았다. 그런 내가 그 반짝이는 세상 속에서 잠들고 싶었다. 그러던 중 저 아이를 보았다. 아이를 보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과 행복을 동시에 느꼈다. 그래서 길을 나섰고, 그것을 선택했다. 떠오르려 하거나 가라앉으려 하는 것들을 모두 받아들여라. 언제나 빛은 너를 구하였으니까. 죽지 않는 꽃처럼, 초현실적인 벽처럼, 허공에 떠있는 조각들처럼. 마음이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과정에서 뒤틀리고 뒤집혀 피가 터져 나온다 해도, 그저 밝은 빛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 아래에 숨겨진 그림자를 인식하고, 어둠의 벽에 익숙해져야 한다.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더라도, 나를 외롭게 버려두더라도 괜찮다. 눈을 떠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자. 혼자서 모든 것이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비가 오는 것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들이 어쩌면 다른 이들의 눈물일지 모른다. 그런 지독히 우울했던 마음들이 결국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수처럼 흐르듯 사라져간다.

## Hyeon O (현오)



"쉬고있던 곳" (2020), "Tricolore" (2023), "눈 오는 밤 /snowing night" (2023)

도시라는 곳에서 살게 되며 마주치는 쉴 새 없는 자극들을 피하기 위해 작가는 어떠한 공간을 찾아내기로 했다. 천 위에 먹과 아크릴등의 수성 재료들로 얇고 촘촘하게 겹쳐가며 화면 위에 공간과 감정을 구현해 낸다. 개인 스스로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개인의 우화를 누구의 개입없이 풀어 낼 수 있는 정신적, 공간적 공간을 작가는 구현하려 노력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물리적인든 정신적이든. 그것이 없는 인간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불쾌감이 쌓일수있으며, 이유 모를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이 그림 속은 조용하고 아무도 없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빈 집도 있고, 의자도 있고, 차도 있다. 누구에게나 원할 때에 쉬고 갈 수 있는 물리적, 정신적 공간을 제공한다.

작가는 눈이 오는 설경을 많이 그리곤 하는데, 눈 덮힌 풍경은 세상을 조용하게, 그리고 모노톤으로 만들어준다. 시각적으로 조용해진 풍경들은 차분하게 느낄 안식에 조금 더 보탬이 되어준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의 발전과, 비대면의 증가로 끊임 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고 있다. 이는 오롯히 혼자서 쉰다는 것을 충분하게 많이 방해하곤 한다.

이 그림을 볼 때만이라도 끊임 없는 자극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물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공간이 생기길 바란다.

현오 작가는 세종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한국화 전공자이며, 초반작업은 먹을 이용한 작업이 주를 이뤘다. 묻혀있는 기억인 무의식에 대한 작업을 하다 최근엔 자극들에서의 도망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있다. 끊임없이 오감을 건드리는 도시 속 자극들에서 작가는 청년들의 무기력함을 이겨 낼, 적막을 찾고자 한다. 그 적막은 한지속으로 스며들듯 나오기도 하고, 캔버스 천 위로 촘촘히 쌓이며 드러나기도 한다.

## JAEHYOUN PARK (박재현)



"자신", "기쁨과 슬픔" (2023), "잃어버린 자아" (2023)

"자신"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젊은시절을 보내는동안 여러가지에 도전하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외부에 나타내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있어서 인생이라는것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세월이 흘러가며 어느새 나의 존재감도 서서히 희미해져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잊혀져가는 모습을 캔버스에 표현.

"기쁨과 슬픔"

웃으라 울으라

멍든 가슴속의 시퍼런 심장이

허열게 질린 얼굴로 너를 볼까 나를 볼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웃어야 할까

아니면 깊은 뜻을 품고 가슴으로 울어야할까

모르는 이는

알면서

어허야 어허야

저거저 맨발로 춤을 추는

벌거벗은 또 다른 내몸동아

이제는 제법 멋진옷 차려입고

허물어가는 내모습을 추켜세워야하건만을

세상사에 마음 떠난 이처럼

어찌 그리도 태연한가

부럽구나 부럽구나  
 어두운 현실속에서도  
 환한빛 바라며 밝혀주는  
 당신의 그 하얀모습  
 나도 그모습 가슴에 담고  
 말없이 웃으며 살아보련다  
 곳곳하게 땅밭으며 살아가련다  
 “잃어버린 자아”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자아를 잊어 버리고 어떤 조직에 적응하려고만 하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해보았다. 환경에 적응하려다가 보니 나 자기 자신의 대한 특별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주변의 환경에 맞춰가는 안타까운 나의 모습을 캔버스에 표현해보았다.

박재현 작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나의 신념, 선과 모양을 사용하여 주제의 형태에 대한 초기 개념을 만들기 위해 개요를 같은 주제의 주요 특징의 균형과 위치를 설정했다. 사람들 개개인의 경험과 이야기의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주변 환경을 인식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영감을 얻으며 그림에서 선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선 예술에 초점을 맞췄다. 나는 먼저 물체의 윤곽을 그린 다음 세부 사항으로 채우고 이번 작품에서 에서 선, 형태, 공간을 사용했다. 단순한 선과 디테일이 가미된 창작물로, 이 선들은 예술에서 주제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공간은 또한 작품의 중요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사용되었고 작품에 움직임, 강조, 그리고 통일성을 사용하였으며 내가 가졌던 원래 생각은 관객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나 교훈을 전달하고 싶으며 잡지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만화와 삽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현재 박재현은 경기도 안양시에 태어나 캐나다 헤밀턴이라는 도시로 유학을 갔다 이후 토론토에서 지내며 현재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중이다.

my work is highly emotional and passionate, they often attract audiences that resonate with strong emotions like depression and loneliness. However, the general public can still find my artwork amusing and aesthetically pleasing. I use a wide range of colors to add value and aesthetic value. The emotionally insensitive audiences are still attracted to my artwork for their beauty and talent. Nonetheless, my sole target audience is the emotionally polarized individuals who are battling particular Figure emotions I convey in my pieces. art is the unspoken words of how people feel and the conveyance of the current status quo in society. Artists use their imagination and creativity to explore various concepts and ideas. In particular, as an artist, I choose to explore identity. I choose to dig dip into what drives me to do what I do and to discover who I am and my role within society. I leverage apt techniques like sketching and mark-making techniques depending on the message I want to pass, to give life to my ideas. My specific workflow allows me to tackle every step of my artwork creation process with precision and intention. I used the elements of art which are line, color, and texture. I used lines in outlining the subject and color to show feelings and emotions. I used the texture as a way of giving a different vibe to the viewer, I want the audience to look at the work and make them think of what it's like to touch the object. I used the principles of art which are balance, emphasis, and movement. An idea of comparison between two subjects came to me after being inspired by a number of artists who have done self-portraits and have expressed their creativity through color. I don't have a political or economic message; this is more of a social message that demonstrates that we all have hidden sides and that it can be difficult for others to conceal their own secret sides when they are around. I feel like it is successful in a way that the creation process is a very sentimental thing for me to show and the result is my artwork. To sympathize with the emotions people felt in their lives, they can watch the exhibition at the CICA.

### Bismark Alejandro Rex



"After Picasso at MFAH (Pre-Covid)" (2020), "In NYC..." (2023), "Nahuatl" (2023)

An interdisciplinary merging painting, sculpture and architecture studies through the breaking down of boundaries of what is considered a work of art.

This is expressed in an intuitive creative process through the use of discarded mundane objects and salvaged materials, being guided by what an environment can reveal when one knows how to seek. A vital recurring theme in his works is a deep-rooted quest for identity, having dual nationality between Mexico and the US and experiencing both cultures existentially.

Inherent with a native instinct to push the limits and finding a sense of freedom, his artworks embody that of a neo-shaman wandering through the simulacra of buildings, paved ground, lush forests and serpentine bayous in our paradoxical landscapes of the metropolis.

## JI HYEON SHIN (신지현)



"웃다보면" (2023), "가꿈은 이렇게 있어볼래" (2022), "소곤소곤" (2022)

### 웃다보면

느긋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나만의 행복을 찾아갑니다. 가만히 웃으며 지친 마음을 조용히 달래 봅니다. 천천히 흘날리는 꽃잎과 바람을 타고 오는 따스한 자연의 풍경은 마음 속을 편안함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 가꿈은 이렇게 있어볼래

마음 속 한편에 잠들어 있는 어린시절 순수했던 나를 식물들과 나란히 놓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가꿈은 이렇게 있어볼래'라는 제목처럼 느긋하고 여유 있는 평범한 하루는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 소곤소곤

부드러운 색감, 식물드로잉과 마티에르의 결합으로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형상화합니다. 식물들의 세계에서 소곤소곤 그들끼리의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신지현 작가는 한국의 옛 스러운 소재들을 현대적 요소와 혼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풀어내는 작업을 통해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손에 쥘 나뭇가지로 모래 위에 신나게 그리던 낙서처럼. 뽀뽀뽀하고 자유로운 드로잉과 모래밭 낙서같은 마티에르로 '자연'이라는 단어가 갖고있는 제 마음 속 이미지를 제 마음대로 표현했습니다. '전통', '우리의 것', '옛날' 등 스쳐 지나가면 낯고, 고루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단어와 이미지들을 조금만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살펴보면 그 속에 가득 담긴 여유와 낭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이고 옛스런 이야기들을 재미있는 이미지로 선물하고자 합니다.

## Swan Song (송수연)



"설레임의 신기루 1" (2023), "설레임의 신기루 2" (2023), "봄굴꽃"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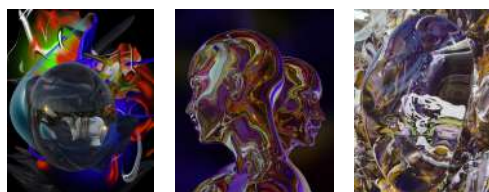
송수연 작가는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의 이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업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말해주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작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Swan Song explores what dreams and hopes each of us living in modern society have.

Through the voices and stories of our society's various members that comment on the life that they say they live, artist Swan Song inquires if, personal happiness and communal happiness are headed in the same direction.

## SOULIMMIX (Kétino Mikadze)



"I SEE YOU" (2023), "BOUND TOGETHER" (2021), "REFRACTION OF A REFLECTION" (2023)

### I SEE YOU / Digital Mixed Media

A reminder to embrace the value of authenticity, to connect deeply, and to cherish the sanctuaries of love we create in a world that is always shifting.

### BOUND TOGETHER -Digital Mixed Media

A metaphor for the interconnection of all individuals, a reminder that our interconnectedness is not limited to a select few but extends to encompass all of humanity and the interconnected web of life in a profound and intricate way, forming a larger collective consciousness.

*REFRACTION OF A REFLECTION / Digital Mixed Media*

Exploring the interplay between the complexity of self-reflection and the distortion of reality.

**SOULIMMIX** is a visual mixed-media artist, her interplay of creating compositions, organic shapes, deconstruction, layering different mediums and textures, bring a sense of animated energy in an intuitive and experimental style, capturing the curves and the motion of the material. Heavily inspired by the biomorphism and the metaphysics, she infuses intense emotions to reflect, where an encounter of higher awareness prevails by exploring time and space as she navigates this world.